

# 대안교육의 눈으로 읽는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지향점

하 태 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1997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인 경남 산청 간디학교(현 간디고등학교) 출범으로 본격화된 대안교육의 흐름은 지난 18년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갈래로 발전해왔다. 10대 자살율, 어린이청소년 행복도, 학습효율성 국제비교 등 다양한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입시라는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인 단일목표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경주차처럼 승자독식의 문화일변도로 달려왔던 우리 교육에 ‘또 다른 길’을 설정함으로써 학습의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공교육 혁신의 인큐베이터이자 테스트베드로서 새로운 교육의 길을 내는데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다. 시민들의 풀뿌리 교육개혁운동으로 시작된 대안교육은 1998년 대안교육특성화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및 76조)와 2005년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60조의3)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가 대안교육, 제도권의 틀을 거부하고 생명, 평화, 자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찾아온 비인가 대안교육, 그리고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세상을 배움의 터전으로 삼는 홈스쿨링까지 다양한 형태가 실천되어왔다. 그 결과 대안교육은 세계 어느 나라 대안교육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왔고 혁신학교, 공립형 대안학교 등의 출범에 영감과 모델링의 근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대안교육’의 성과에 기대 사회적 욕망을 빼들게 드러내는 변종대안교육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대안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나름의 의미와 성취를 이뤄왔다.

대안교육의 눈으로 국가교육과정을 바라볼 때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논의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할 때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정리해본다.

1. 정보의 학습보다는 핵심역량 양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핵심역량이 어떻게 단순 수사를 뛰어넘어 구체화되어야 하는가?
2. 핵심역량은 현실 생활과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인가?
3. ‘공’교육의 필요성에 응답할 수 있는 공적 시민 양성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출세영화라는 사적이익을 뛰어넘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치 있는 공공적 목표는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가능할 것인가?
4. 통합적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단계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의 확보는 어떤 장치를 통해 가능할 것인가?

5. 교육과정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 학습자들이 어떻게 배움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인가?
6.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배움의 틀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열린 교육과정은 어떻게 가능할까? 학교 밖에서의 배움은 어떤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 대안교육의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